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



곽재환
(주)칸 건축사사무소
1952년 1월 대전 생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1974년)

잠재의식 속에 건축에 대한 싹이 자라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잠재의식 속에 건축에 대한 지향성이 자라고 있었지 않으나 싫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무척 좋아 했었는데, 6학년 때 부터 매년 서울로 올라와서 사생대회에 참가하고 지도교사 인솔 하에 '국 전'에 구경 가면 자연스레 건축전도 보고해서 그런지 건축과로 진로를 정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다.

내가 대전중학교 졸업 후에 당시에는 5년제 전문학교 제도가 있었는데, 일반 고등학교 입학시험 전에 먼저 시험을 보게 되어 있었다. 모의고사 시험을 본다는 마음으로 원서를 내 시험을 치렀다. 나는 사실 전국미술대회에서 특선 등 수상경력이 많아 대전고 미술교사도 나를 예뻐해서 대전고에 특 기생으로 입학이 내정되어 있던 상태였다.

전문학교인 대전공전(현 국립한밭대의 전신)에 1차 시험 합격한 사실을 친구를 통해 전해 들었으나 별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대전고등학교 시험 전날 학교에 가서 시험 볼 자리에 앉아 주의사항도 듣고 수험표도 받았다.

집안형편을 고려 장학생으로 입학한 대전공전으로 진학하다

그런데 그날 만나는 중학교 선생님들 마다(대전중학교와 대전고는 원래 태생이 한 학교로 붙어 있다) 자네는 전공 선택도 잘 했고 시험성적도 우수 해 장학생으로 합격됐는데 그냥 대전공전에 가지 왜 일반 고등학교에 가려 하느냐고 강권하셨다. 집에 돌아와 꿈꿈이 생각해보니 3년 터울인 바로 위 형님을 포함 두 분 형님을 서울로 대학을 보내 어려워하시는 어머니가 어린 마음에 걸렸다. 장학금도 준다는데, 밤새 고민 끝에 대전공전에 갈 마음을 먹었다.

당시에 저는 전문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여 학사학위 과정까지 7년 코스를 5년에 마치는 영재교육 제도인 것으로 잘못 알았다.

색맹테스트는 청소부가 합격판정을 해주다

그날 밤 형들이 색약 때문에 공대 전공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말이 언뜻 떠올라, 나도 혹시 그런 것 아닌가 우려가 되어 새벽녘에 안과에 달려갔다. 새벽에 의사가 있을리가 없었는데, 마침 청소부가 있어 사정을 말하니 색맹 테스트하는 책을 가지고 오더니 길거리에서 넘기면서 테스트를 해주는 것이었다. 청소부가 색맹이 아니라고 판정해주는 바람에 믿고 그길로 전문학교로 발길을 돌린 것이다.

나이가 들어 생각해보니 어떻게 그때 그 청소부 말을 믿었는지? 운명이다. 청소부가 내 운명의 사신이었다. 만약에 일반고교인 대전고를 졸업했다면 지금 무엇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다.

전문학교에는 건축, 기계, 토목, 전기 등 네 개의 과가 있었는데, 미술과 관련이 있어 건축을 택했다. 성장하면서 그리고 사회를 알게 되면서 일반 정규대학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영남대학교에 가게된 것이다. 결심한 그 즈음 다른 대학에 편입할 기회가 내게 없었다.

재주를 믿고 농땡이를 부리다

건축을 택한 것은 내 적성에 잘 맞았다. 그러나 학교 다닐 때 농땡이가 심했다.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집에 불이 나, 동생 학비를 선물로

받고, 전문학교 5학년 때 아예 송승호 건축사사무소로 출근했다.

학교에 거의 나가질 않았다. 설계 D학점 받았고, 잘릴 뻔 했다. 그런데 능력은 인정 해 줬다. 교수님들 부탁으로 건축사 시험 모의설계도를 내가 작성해 주기도 했기 때문이다. 깔고 그리라고 말이다.

대학교 졸업 후 첫 직장으로 정일엔지니어링에 들어가다

1974년 2월에 영남대학교를 졸업하고 대전에 있다가 1974년 말에 서울로 올라 왔다. 그해 연말인가, 정일엔지니어링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우경국 선생을 만났다. 앞 뒷자리에 앉아 건축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즈음 간담의 이광만 대표도 막 졸업하고 들어왔다.

1년 쯤 정일엔지니어링에 있다가 군대에 가서 1979년 사병으로 제대하고 다시 서울로 와서 당시 김희춘 선생님이 관여하신다고 알려진 신아건축(대표 안장원)에 입사하게 되었다. 그때 건축가 이일훈 씨가 그곳에 있었다.

신아건축에서 김중업건축연구소로 옮기다

신아건축에서는 마지막으로 경성대학교 농과대학 설계를 하다가 학교에서 원하는 것이 나의 지향과 안 맞아 포기하고 김중업 선생님 사무실로 옮기게 됐는데, 마침 신아건축에 계신 어느 한 분이 내게 "너는 김중업건축연구소에 가면 잘 맞을 것 같다"고 해서 당시 김중업 건축연구소 이대형 실장을 소개받아 면접을 보게 된 것이다.

김 선생님이 제 이력서를 보시더니 "한군데 오래 안 있었으면" 하시면서 최소한 이년간은 있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느냐고 하셨다. 제가 대답하기를 "사람 일이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간을 어떻게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선생님이 보시기에 제가 영 아니다 싶으면 이년 이전이라도 나가라고 할 수 있고 저 또한 그만 둘 수 있는 것이지 그 약속은 못 하겠다. 대신 있는 동안 건축이라는 작업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요것 봐라" 요즘 맹랑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흔쾌히 수락하셨다.

육 개월 만에 실장이 되다

그날 면접은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그마치 6~7시간은 족히 걸린 것 같은데, 그동안 선생님께서는 담배 한 갑을 다 태우셨다.

평시원으로 입사했는데 육 개월 만에 실장으로 임명되었다. 선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급상승한 것이었다.

실장타이틀로 계획한 것이 육군박물관이다.

그동안 김 선생님 사무실에서는 계획을 직원에게 맡긴 경우가 없었다는데 내게 실장 타이틀을 주시며 선생님께서 "나는 미국에 다녀 올 테니 자네가 한번 해보게" 하셔서 밤을 새워가면서 진행한 첫 작업이 장안평 채탈센터(계획안)였고, 그 후 세워진 것으로는 현재 태릉 육사내의 육군박물관 작업이다.

잠시 중동에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에 가서 일하다

김중업 선생님 사무실 재직 중인 1982년도에 잠시 사우디아라비아에 간 적이 있다.

설악레저타운 내 호텔 배치를 내가 잡아 선생님께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설명을 다 들으시더니
 “자네 입에서 결국 그 말이 안 나오는군, 나 같으면 이곳에 호텔을 두겠네” 하시며
 호수가변에 위치시킨 호텔을 번쩍 들어 호수 안으로 옮겼다. 그때 죽비로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다.
 물에만 머물렀던 나의 상상력의 영역이 확 열리게 된 것이다. 왜 땅에만 지을 생각을 하였지,
 건축은 물 위에도, 하늘에도 지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상상력과 생각의 새로운 문이 열린 것이다.

사우디에 가게 된 이유는 중동에 있는 현지인 엔지니어링 사무실인데, 내 뜻대로 설계하여 지어진다는 말에 솔깃해서 가게 되었다. 막상 가서보니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육 개월 뒤에 다시 김중업 선생님 사무실로 복귀했다. 사막에 제 뜻대로 지을 수 있다면 아주 환상적 일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것이다. 보수는 제법 많이 받았었지만...

다시 오니 마침 을지로 장교동재개발 현상이 있던 때였는데 참여해서 당선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독립기념관’ 현상설계가 있었다. 안장원, 우경국 두 분과 같이 공동응모하기로 해서 김 선생님 사무실을 또 그만 두게 되었다. 김중업 선생님이 독립기념관 현상설계 심사위원을 맡으셨기 때문이었다.

독립기념관 현상은 보기 좋게 떨어졌다.

1985년에 다시 복귀 연이어 아홉 개의 현상설계에 당선되다

그 후 김중업 선생님께서는 지병인 당뇨병에 합병증을 얻어 1984년에 혼절하는 등 건강이 극히 악화되었고, 1985년 3월에 김 선생님 부름을 받고 다시 들어가 작업한 것이 여의도 KBS방송국의 IBC센터, 올림픽 평화의문 등인데 무려 아홉 개나 연이어 당선되었다.

MBC 광주방송국, MBC 여수방송국, 군산 시민문화회관, 군산 여성회관 등이 그때의 프로젝트들이다. 한꺼번에 일이 터져 사무소를 법인으로 바꾸었다. 김중업 선생님 사무소 역사상 가장 직원이 많을 때였다. 수석책임자인 나는 그 당시 필필 날랐다. 주변에서는 죽은 나무에 꽃이 피었다고 할 정도였다.

김 선생이 사무실을 맡아주기를 부탁하나 무산되다

김 선생님이 병환중이라 사무실의 장래문제를 걱정하셨는지 어느 날 둘째 아들인 김희겸과 저하고 장태희 실장 삼인이 사무실을 맡아서 운영 했으면 하는 의중을 나에게 전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인 김희겸에게 아무리 제자라고해도 선생님 함자를 내걸고 평생 작업을 할 수는 없으니 사무소 명칭을 ‘공간’과 같은 추상명사로 변경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선생님에게 차마 그 말은 할 수 없다고 해서 무산됐다.

대책 없이 독립하다

그래서 1987년도에 대책도 없이 무작정 독립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한 작업은 정일에서는 남서울대공원, 현재 과천 어린이대공원 마스터플랜을 우경국 선생과 같이 진행했고, 신아건축에서는 정신문화연구원 부설 도서관 계획을 김희준 교수 지도아래 계획을 담당했다.

이어서 경상대학교 마스터플랜을 총괄하였고 농과대학 설계하다가 기본 컨셉이 학교와 잘 안 맞아 김중업 건축연구소로 옮기게 됐는데, 김 선생님 사무실 가서 한 작업은 앞서 말한 육군박물관, 부산충훈탑, 을지로장교동재개발, IBC센터, 올림픽평화의문, MBC 광주방송국, 군산시민문화회관, 여성회관 등이다.

육군박물관은 수의계약 하게 된 경우인데, 우경국 선생이 통일 후를 대비한 육사 마스터플랜을 육사 교수와 함께 하고 있던 중에 육사에 김중업 선생님을 추천하여 성사되었다. 감사 표시로 대신 육사 비오규 등의 시설계획은 우경국 선생에게 따로 설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박물관 이후로 부산 충훈탑, 육사테니스 클럽하우스 등의 일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진주문화회관 현상설계 당선 후 사막의 유혹에 이끌려 사우디 리야드의 알사왈레 엔지니어링 회사에 가게 된 것이다. 당시 신아건축에 있던 몇 사람도 함께 갔었다. 6개월 만에 김 선생님 사무실로 복귀하여 을지로 장교동 재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중소기업은행본점이 지어졌다.

나는 김 선생님 사무실에서 ‘평화의 문’ 설계 납품을 끝내고 1987년 6월쯤 나와서 독립하였다. 김 선생님은 그 다음해 5월에 작고하셨다.

김중업 선생님에게서 건축에 대한 상상력의 문을 열게 되다

선생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중에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사무실 들어가서 두어 달 쯤 지났을 때였다. 설악레저타운 내 호텔 배치를 내가 잡아 선생님께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설명을 다 들으시더니 “자네 입에서 결국 그 말이 안 나오는군, 나 같으면 이곳에 호텔을 두겠네” 하시며 호수가변에 위치시킨 호텔을 번쩍 들어 호수 안으로 옮겼다. 그때 죽비로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다.

물에만 머물렀던 나의 상상력의 영역이 확 열리게 된 것이다. 왜 땅에만 지을 생각을 하였지. 건축은 물 위에도, 하늘에도 지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상상력과 생각의 새로운 문이 열린 것이다.

또 하나는 선생님이 코르뷔지에 밑에 있을 때 인도 상디갈에 대통령궁(계획안) 설계를 하는데 코르뷔지에가 선생님에게 요구하기를, 리셉션 홀의 악사들은 춤추는 초대 손님들과 같은 레벨에 있으면 안 되니 구름위에서 음악이 들리는 것처럼 하라고 했다. 그렇게 하려면 플로어가 하늘에 떠있어야 하는데, 도무지 해결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찢찢매다가 결국 유명 구조설계자를 초빙하여 피아노선으로 매달고 조명처리로 착시현상을 주어 마치 실내 허공에 떠있는 것처럼 계획을 했다는 말을 들려 주셨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건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김 선생님께서 10년간 뜻하지 않은 반강제 추방을 당해 프랑스, 나이지리아, 미국 등을 전전하면서 유랑생활을 하신 적이 있다. 이유는 경기도 광주 이주 사태를 주제로 신문에 글을 기고했는데, 며칠 후 철거민들의 폭동이 일어나서 애꿎게도 그 사건의 배후 주동자로 몰려 정보부 가서 고초를 겪은 후 추방당하신 것이다.

외유생활로 한이 맺히셔서 그런지, 내게 “자네는 나와 같이 이런 길을 걷지 말게”라고 하셨다.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었다. 그때가 내 나이 30대 초반이었다. 나는 선생님에게 이런 말씀들을 통금 시간을 넘겨가면서 들곤 했다.

1987년 독립하여 사무소를 개설한 후, 대전의 송승호 소장님 제안으로 대전시 목동천주교성당 현상을 참여하게 되었는데, 내가 안을 잡아 당선되었다. 당선 된 이후 성당 축에서 서측에 계획된 제단부분을 동쪽으로 방향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동향은 어둠을 밝히는 상징성도 있고,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동쪽은 예루살렘 방향이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주님은 온 천지 사방에 있는 것 아닌가? 현대도시의 입지여건에서 제단의 방위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 그런 물음을 던지며 그 상태에서 손을 뗐다. 김중업 선생님 밑에서 배운 교장교장한 기질을 드러낸 것이다.

독립했으나 일감은 없어 고생을 하다

그렇다고 그럴싸한 일감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근근이 생계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해선 인재양성이 중요하고 일의 수급 조절도 필요하다.
 소수의 집단과 사람에게 기회가 집중된 현재의 발주시스템은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공공의 대단지 아파트 사업일 경우 공공건축가가 총괄코디하고 규모에 따라 가급적 많은 사무소를 참여케 하여
 작업할 기회를 나누어 제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단지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강력히 추진하려면 삼단체의 통합이 절실하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겨우 버텨 나갔다. 1980년대 후반에 한 일이라곤 예바스화
 장품 공장 설계 말고는 이렇다 할만한 한 일이 없었다.

그 이후도 몇 개의 계획안만 진행되고 실현이 안 된 일들이 대부분 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도 프로젝트 기근현상은 개선될 조짐이 없었다. 혼자 골똘히
 명상만 했다.

4.3그룹 활동으로 뜻 맞는 건축가들끼리 건축에 대한 해갈을 하다

그러다가 뜻 맞는 건축사들끼리 4.3그룹 활동을 하면서 술도 먹고, 공부도
 하고, 함께 여행도 하면서 각자의 건축에 대한 발표도 하고 그랬다. 일이 없으
 니 그렇게 위안을 삼으며 놀았다. 어느 날 멤버중 하나인 승효상 소장이 진행
 하던 나다칸트리클럽의 그늘 집 여러 채를 멤버들이 나누어서 설계하지는 제
 안이 있었다.

내가 맡은 것은 내가 '눈의 집'이라고 명명했던 작업이었는데, 갈증이 있던
 때라 열심히 했지만 이것 역시 성사가 안 되었다. 페이퍼 아키텍트란 닉네임이
 생겼다.

몇 개의 프로젝트로 건축상을 옮겨주다

다행히 1990년대 중반에 들어 현상에서 당선된 것이 비전힐스 컨트리클럽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2000년 한국건축문화대상, 2001년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이고, 연이어 제일영광교회(2001년 은평건축상 금상 수상), 은평구립도서
 관 현상 당선(2001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2002년 서울시 건축상 은상 수
 상)으로 이어진다. 나의 황금기였다. 그러다 갑자기 IMF를 맞았다.

건축 작업에만 골몰하던 데서 사회참여로 눈을 돌리다

그리고 다시 와신상담. 급기야 나의 심경에 변화가 찾아오고 2003년부터
 나의 활동방향은 이전과는 다른 궤를 걷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내 자신의 건축은 제 창작의지의 구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나만의 공간에 홀로 앉아 구상에 몰두하는 것이 전부였다.

변화는 내 자신의 다섯 화두중 하나인 '품'의 물음과 실천의지에서 비롯됐
 다. 내 인생에 있어서의 '품'은 무엇인가? 그동안 내 삶은 사회적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었고, 건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가치가 막연했으
 며, 물질적 결과물인 건축물에 너무 집착해 있었다는 반성이다. 건축 작품만이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다.

내 개인의 상상력과 표현의 구체화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세상을 아름답
 게 변화 시킬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했다. 건축을 통해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며 내 창작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시티몽키'라는 잡지를 만들다

그런 심경의 변화가 있을 때, 마침 한터인(대표 이영현)에서 함께 작업하자
 는 제안이 들어왔다. 고맙게도 오천만원을 투자해 '시티몽키'라는 이름의 잡지
 를 만들게 되었다.

도시를 이루고 사는 유인원이라고 은유된 명칭의 잡지인데, 도시는 시티, 꿈
 은 몽, 열쇠는 키, 즉 시민들에게 "이 책에서 도시의 꿈을 캐 주세요" 라는 메

시지가 담긴 잡지였다. 2004년도부터 1년간 준비하고 2005년 봄에 계간지로
 창간호를 발간했는데, 그 뒤 계속 발행하지 못하고 결국 접었다.

흙빛공부방이란 프로젝트로 공간문화대상을 수상하다

한터인과 더 이상의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2005년부터는 동우건축과 함
 께 이런저런 일들을 도모 했는데 그중에 '흙빛공부방'이란 프로젝트가 있었
 다. 내게는 상당히 의미가 컸다. 처음에 동우건축에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설계완료 후 기공식까지 마친 상태 였는데, 건축주인 고한성당의 주임신부가
 내내 고민하던 차에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게 된 프로젝트다. 2007년에 대한민
 국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그 뒤에 동우건축하고 영월연수원, 한의
 학연구원 등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다.

칸이라는 이름으로 세 명의 건축사가 함께 모이다

그러던 2007년 6월 방철린, 이용우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만나 사무실을
 합치기로 하고, 그동안 각자 사용하던 사무실 타이틀을 접고 대신 새로운 명칭
 인 칸(間)을 사무실의 공동 이름으로 정했다. 그래서 건축그룹 칸이 출범하게
 되었다.

칸이라는 이름은 전통건축의 모퉁이 한 칸 두 칸을 의미하는 순수 우리말인
 데, 여기에 인간, 시간, 공간의 의미도 함축하는 뜻을 담아 정한 명칭이다. 벌써
 이렇게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이제 만 4년이 넘었다.

칸이라는 명칭으로 이곳에 와 수행한 작업 중 대표적인 것은 수원에 있는
 에이블아트센터인데 2010년 9월 준공예정이고 그 외 장위동 제일교회, 수원
 자혜학교의 직업전환교육센터, 삼성동 주민회관 리모델링 등의 프로젝트들이
 있었다.

직원은 3명인데, 지난달 퇴사한 직원이 있어 채용면접 중이다. 연간 4억 정
 도 하면 괜찮을 텐데 힘들다.

한국건축가협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다

건축설계 말고 건축과 관련 없는 다른 분야의 일을 해 볼 생각은 전혀 한
 적이 없고 다만 2003년 이후부터 한국건축가협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작년 봄에 건축문화학교를 개교하고 교장을 맡았다. 대학교에도 꾸준히 나가
 강의하다가 올해는 쉬고있다.

소형사무실은 애초에 큰일은 참여할 엄두도 못내는 세상이 되었다

사무실 규모가 작아서 큰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과 대 시민서비스, 기술서
 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큰 애로사항이고 현상설계는 과도한 과제물
 과 그것을 만들기 위한 경비가 부담돼서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먹을 수 없는데
 이런 현실이 씁쓸하다.

옛날에는 직원들과 같이 앙강해서 제출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각종 CG경비
 가 엄청나 낙선 후 경제적 후유증도 크고 설계경기과정에서 로비라는 것을 버
 짓기 하나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풍토에서 그런 것 들을 함께 배우르자니 나의
 자존심과 건축철학이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움푹달락 못하는 것이다.

인터뷰 후기

내가 그를 알게 된 것은 시간이 꽤 흘렀지만 흐른 시간만큼 비례적으로 그를 알지는 못한다. 오히려 이번 한 시간의 집중적인 인터뷰에서 그의 삶의 궤적을 입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동안 아주 고집스럽게 본인의 건축 작업에만 집중하는 건축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것은 건축계의 미래와 건축계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울분과 또 이를 타개하기위한 협회차원의 노력에 많은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의 건축철학은 다섯 가지 주제로 요약된다

나의 건축철학과 건축이념을 굳이 말하라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건축에 대한 다섯 가지 화두를 말할 수 있다. 내가 오간(五間)이라고 부르는 있는 것인데, 건축의 존재 가치는 인간의 행태를 자연과의 관계에서 보다 고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려면 자연 섭리를 알아야 하고 인간의 행위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인간의 근본 행위를 삶, 알, 놀, 풀, 빚의 다섯 가지로 보고 있다.

제 건축은 이 다섯 가지의 가치를 의미 있게 담아 자연과 합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삶'의 행위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활 행위이고, '알'의 행위는 마음의 지성이 인식하는 탐구 행위이며, '놀'의 행위는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는 사교 행위이고, '풀'의 행위는 마음의 의지를 실천하는 작업 행위이고, '빚'의 행위는 영혼의 소망을 추구하는 기원 행위라고 생각한다.

후계는 생각도 못한다.

내 자신이 존재가 없는데 후계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론 것이 있고, 넘겨줄 것이 있을 때 후계가 필요하지, 나에게 어렵도 없는 단어이다. 후배건축인들이 부단히 건축의 본질적 가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담금질하고 건축의 근본적 속성인, 공공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되었으면 한다.

내 자신의 비전은 없고 바람이 있다면, 노숙자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으면 아마도 첫 번은 먹는 거, 다음은 입는 거, 그 다음이 안락한 쉴 곳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그만큼 집은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문제인데 세간에서 그 중요성을 건축인들이 제대로 정립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건축인들 스스로 건축의 본질을 재정립하고 건축의 공공성을 추구해 시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때가 오기를 바란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부암동 다가구 주택과 유리박물관이 있다.

삼 단체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삼 단체 통합은 내 자신이 앞장서서 추진했는데 건축계의 상황이 아주 절박하다고 느꼈다. 기존 건축 질서의 근본적인 혁신과 새로운 풍토조성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 한국 건축계의 몸은 그동안 전체를 살피는 철학과 비전이 없이 부분적인 편법 처방만 해, 꼬일 대로 꼬이고 뒤죽박죽돼 이젠 어떤 처방도 효력이 미미한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약처방으로 될 시기는 지났고 건축계의 심장과 뇌, 위 등 문제 부위를 과감히 잘라내 소생시켜야할 긴급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기존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정립할 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설계, 감리 분리하자는 말은 건축사 스스로 자신을 모욕하는 처사다'

설계, 감리 분리하자는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먹고 살만한 대안이 없으면 이럴까? 암담한 현실을 생각할 때 한편 이해도 되지만 건축의 본질로 보면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마치 변호사가 변론자료 써넣고 막상 법정에는 다른 변호사더러 변호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가 환자진료 후 막상 수술은 다른 의사에게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한심하고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장 감리 전담하는 분들에게 유예기간을 주고 건축의 본령과 건축사의 본분, 그리고 건축의 제 규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

김중업 선생 사무실에서 재직하면서 많은 현상설계에 참여해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그가 막상 자기 자신만의 성채에서의 전과가 부족함은 그만큼 능력부족이 아님을 나 자신도 잘 알기에 인터뷰말미에 그가 건축계에 뱉어낸 소리를 그냥 흘려들을 수 없었다. 나는 또 비겁하게 한마디 했다. "건축계를 위해 인정주세요. 도와 드릴 테니..." 일제강점기 시절에 상대를 향해 "독립운동하세요. 저를 위해서 심적으로 지원해 드릴 테니" 하는 말과 무엇이 다르랴?

최동규 편찬위원장

작해야 한다.

턴키, 재건축 등의 대규모 일에 소수의 사무실만이 참여하는 것은 국가정책에도 반하는 일이다

그리고 재개발, 턴키, 재건축 등의 발주 시스템을 보면, 이런 모순된 정책 시행이 어디 있을까? 매년 상당수의 건축전문가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면서 한편에선 100명이 10년에 할 일량을 한 두 명이 1, 2년 안에 처리하는 발주는 뭘까?

쌍말이 저인망 어선으로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행태와 뭐가 다를까? 정부가 인적자원의 수급 불균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축정책의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해선 인재양성이 중요하고 일의 수급 조절도 필요하다. 소수의 집단과 사람에게 기회가 집중된 현재의 발주시스템은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공공의 대단지 아파트 사업일 경우 공공건축가가 총괄코디하고 규모에 따라 가급적 많은 사무소를 참여케 하여 작업할 기회를 나누어 제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단지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강력히 추진하려면 삼단체의 통합이 절실하다.

중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정책엔 단일한 목소리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국민 서비스를 증대하여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한 국가적 이슈가 되는 건축의 사회문제에 대해서 협회가 나서서 지속적으로 발언해야 한다. 무대책, 무반응으로 일관한다면 어찌 건축계가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그룹이 될 수 있을까.

현재 건축계의 통합은 사회의 부결로 불발된 상태지만 파트너인 가협회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통합을 의결하여 내년 2월까지 기다리고 있다. 사회계의 미래인 젊은 건축사들이 분연히 들고 일어나야 한다. 건축과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해, 건축계의 썩은 종양을 잘라내고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금년에 서울건축문화제의 총감독 겸 집행위원장을 맡아 새로운 건축상 제도의 패러다임을 수립, 이번엔 그 결과를 공고 했다. 특히 준공 후 25년 된 건축 중 아직도 공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건축을 선정해 건축문화상을 주기로 했는데, 지난 세대의 작품을 현재 세대가 평가해 경의를 표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런 것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가 형성되리라 기대한다. 또 건축에 대한 평가가 이제까지는 준공 후 바로 하다 보니 공간적 측면의 가치만 부각되고 상대적으로 건축의 시간적 가치에 대해 평가할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엔 이를 다소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건축설계의 미래가 암담하다

건축기본법이 제정 된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 이렇다 할 후속 움직임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당장 건축계는 고사 직전인데, 이대로 두면 건축계의 견장을 수 없는 붕괴는 자명하다. 메이저급 건축사무소도 건설사에 종속되어 건축계를 리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 오히려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이대로 몇 년 더 대책 없이 휩쓸려 가다가는 건축사무소의 미래는 50년 전의 대서방 같은 수준으로 회귀할지 모른다는 부정적 전망이 현실이 될 것이다. ■